



조선인민군 해군사령부 참장

김철성 소장.

반 김일성 혐의로 처단 받은

1.

김철성 해군 소장.

해군사령부 참모장 김철성은 1926년에 원동변감 연  
해주에서 태생하였다. 1937년에 원동에 살고있던 전체  
고향인들이 강제 어구당환후 새로운 지방에 실려온 철성의  
부모들은 살아갈수(안)있는 생활의 호대를 잡지못하고  
이지방 저 지방에 이주하여 다니다가 질병에 걸려 무로  
양위와 누이동생은 세상을 떠나고 철성은 다슈켄트  
에 살고있는 사촌의집에서 살게되었다. 그는 1945년에  
다슈켄트 사범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다슈켄트 주변에 있는  
"북극등대" 고향은 내에 있는 공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일하  
였다. 1946년에 우크레인 공화국 교육성의 명령에 의하여 단  
기강습을 마친후 1946년말에 북한에 파견되어 해군군  
관 학교 로어강좌에서 일하는동안 분학교 기별강령과 전후  
출연 계획이라 완전히 숙로함으로 1949년 졸업생들과 함께  
최우등생으로 졸업하였으며 1949년 10월 1일에는 해군 참  
모부 작전부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어 주위에서 6.25 동족  
상쟁을 맞이하게되었던바 젊은 작전부장은 남한을 점령할  
동족상쟁을 김일성의 명령에 따라 소련고물들의 지도하에서  
오쿠일전봉어, 전쟁이란 "불이의공격으로 번저손은쳐야 승리한다"는  
기분 전후원칙에 따라 작전지도를 작성하는 한편 하북 연방  
부대와 해군기지들에 하달할 전후공격령을 작성하여 사령관  
한일부의 비를 받아 홍천포부 작전국에 제출하였다. 최고  
사령관의 비를 받은 전후공격 명령은 전후 개시 3일 전에  
받았으나 "각 해군 기지들과 연방부대들에게는 다만 1950년 6월

2. 2시 일 24시까지 전달할것이며, 각 군함, 어뢰정, 해군 육전  
대대에는 전속 개시 2시간 전에 개봉 낭독할것이다. 라는 총  
참모장의 명령에 의하여 참모부 기무과 규고에 넣고, 하부  
부대 기지들에 파견할 특별 파견 군관들과 자동화들을 준비  
하고 있었다. 상부로부터 이상과같은 명령지시가 내려온 다음  
점은 작전부장은, 자기는 하부 연합부대에 나리가 전속지위를  
할 의무가 없으나 한일부 사령관의 특별허가를 받고 전방  
전속장에 나가 전황대를 전속지위를 하겠다고 제일큰해운  
기지 원산기지로 전쟁개시에 대한 최고사령관의 명령서를  
가지고 내려갔다. 그는 명령대로 아침 3시에 각 어뢰정  
장, 함장, 해안방어 해군 육전에 지휘관들을 붙여놓고 6.25  
동안의 개시에 대한 명령을 낭독하였다. 명령서를 낭독하는  
도중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은 명령서에는 남한 국방  
군이 먼저 공격하여 북극양을 2-3 기로씩 침입하였다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전방기지들에서 적의 침공에 대한 아무런  
통보도 없었던 것이 기지 앞이 미안하여, "이것은 38선 전역에  
걸쳐 육군부대로서 침공하였다는 말이 옳" 하였다. 김철성 작전  
부장은 최고사령관이 비준한 해군사령관의 명령을 낭독한 다음  
원산기지장은 기지에서 지도제하로 자기는 전속서열  
과같이 어뢰정에 앉아 남침할것을 계획하고 1950년 6월  
25일 새벽 500시에 공격개시에 대한 명령은 원칙적  
으로 기지장이 내리도록 하였다.

이렇게 1950년 6월 25일 500시에 드디어 남한을 공격  
하는 북한어뢰 해군 부대들이 남침은 시작되었던바 작전부장  
김철성 소장의 말에 의하면 38선을 넘어 주문진, 감능물진

포항까지 나가는데는 국방군이나 군함을 만났<sup>3</sup>  
어 이 즉 아무런 저항력도 없는 항구들을 계속 점령하면  
서 나갔다 각 항구들에는 다만 경비대들이 몇 명씩 있고  
경찰병들이 몇 명씩 있어으나 그들은 상복(喪服)을 받지  
않았기에 아무런 전후도 하려하지 않았다. 상복  
의령령에 의하여 물류도를 점령해야 되었<sup>4</sup>다. 북한  
해군 20 명이 어뢰정 1척과 어부들의 보충 발동선  
1척을 몰고 가서 경찰 몇 명을 무장 해제하고 북한  
식으로 내무원 몇 명 임명하고 몰수한 무장들을 그들에게  
포류 주니 소위 북한식 해방이었다. 북한 해병들은 포항  
에 도착하여 기대도하지 않던 미군함대를 만나게 되었<sup>5</sup>다  
그들은 대대적 반공격에 나서서 북한 해군들을 타격하기  
시작하였<sup>6</sup>다. 이때로부터 북한 해군들은 미함대의 타  
타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미 점령하였던 항구들을 하나씩  
내주면서 적은 힘으로 영웅적으로 싸우다가 작전부장 김  
철성의 의견에 의하여 즉물진 항구의 결사전은 계획하고  
후회하여 들어오던 어뢰정 2척과 소형, 경비정 등 몇 대를  
잘 준비하였<sup>7</sup>다. 해안부대들이 엄호하여 미대군함들에  
반타격을 가하였<sup>8</sup>다. 이전후에서 어뢰정들은 직사적  
탄거리 500 미터까지 접근하면서 군함들에 어뢰 타  
격을 주었<sup>9</sup>다. 이전후에서 미함대에서도 웃뜨가는  
대군함<sup>10</sup> 발사모르기 칠물되고 다른 소군함 몇 척이 대타  
격에 희생하였다. 즉물진 해전에서 북한 해군들이 비  
교적 큰 성과는 얻지 않았으나 항구도 미군에게 내주<sup>11</sup>고 또  
후회를 계속하게 되었다. 북한 해군들에게는 전후를

4

계속할수있는 해병 전후기래라고는 어뢰정 2척밖에는  
남지않았다. 대충에 남아있는 배들은 전부다 원산에 들어  
보내곤 언제들어온 해안방어부대들의 포를 리용하여 리군  
함들의 북한 항구들에 접근을 저지하여해렸으나 그로  
역서 거센 압포사격과 항공대의 무차별 집중적 포격  
에 의하여 북한 항구마저 하나 하나 다씩 비어 죽이 원산  
까지까지 후퇴하다가 원산항에서 다시한번 1차리북  
결사전을 계획하고 생사의 항쟁을 하였던바 이전쟁에서  
도 적군함 1척을 침몰시키고 다른 한척은 대파시켜드  
주게하였으나 북한의 함대는 많이남 전후기래 들은 다  
침몰시키고 원제는 해군이 해군 육전대를 완전히  
변하여 원산서 들어온 해군들이 전부다 육지에 몰려다  
양덕 행상을 지나 만포전까지 후퇴하였다. 어디에  
는 원연군 최고사령부도 김일성 최고사령관을 의숙로 하여  
만포진 비탈노에 와 있었다. 해군 사령부가 최고사령관  
의 명령에 의하여 중국인민 지원군과 협동작전을 하면서  
다시 평양에 나가게 되었었다. 평양에 도착한 해군들은  
제 1차 공격을 총화하고 1950년 12월 30일 최고인  
민회의 상임위원회의 명령으로 리군함들을 침몰 대파  
시킨 어뢰정장 김준옥, 리완근 과 동해안 해군들의  
전후들을 잘 조직보장한 해군사령부장 전복장 김철성  
에게 조선인민국국의 인민공화국 명용 칭호를 수여하였다.  
그후 1951년 정월달에 최고사령관의 명령에 의하여 작전  
복장 김철성은 소련 해군 고급 지휘관 대위에 파견  
되어 1953년 6월까지 2년반동안 공부하고 그를 유수한

5  
성적으로 필항다음 최고사령관의 명령으로 해군사령부  
참모장으로 임명되었는데, 군사정보는 해군소장으로 승급되었다.  
사람들의 신경을 흔들러내며 그를 바비식히며, 인간에게  
있어서 단 한 가지 가장 고귀한 사람의 도덕을 바비화해석하는  
김일성이 자기 자체가 망할증조로써의 높은 정품운동은  
드디어 인민군대내에도 1955년도 봄에는 시작되었다.  
여정은 순전히 간부숙형조작언바 맨처음 홍콩에서 나온  
준비된 간부들부터 물어뜯기 시작하여 남한에서 임복한  
간부 소련에서 온 간부, 한라리로 말해서 아무런 준비도  
없는 김일성 비바최산 출신만 알당지고, 다른 사람들은 전  
부다 출적, 후속 한광이나 한광들에서 유행사리를 <sup>한게</sup> 하였다.  
소련에 공부하러 갔다가 귀국한 해군소장도 일년여 지나지  
않아 이바란에 휩쓸리게 되었다.

참모장 김일성의 사상검토 경로를 그의 부인 박노아  
비바블로브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 «1957년  
에 군대내 사상검토운동이 가장 높은 정점으로 오를 무렵  
즉 6월 말일쯤 되어서 니콜라이(그의 러시아 이름)는  
기분이 상당히 저락되고 초조한 기색에 수심을 띠고 단니는  
것이, 아무런 말도 다로하지 않으나, 확연하게 나타내고  
있었다 그는 한번 나하고 말하기를 «한고항에서 같이온  
사람을 다정한 친구라고 믿고서 사실이아기를 내놓았  
더니 그 사람은 그 말을 전부다 뒤집어 사상검토차로 삼부  
당기관에서 내려보낸 지도원에게 다 대주느니 나는  
아마도 이제 잘못된 것 같소» 하였다고 말하였다. 아니, 그  
게 무슨 말났이요? 한고항에서 온 다정한 사람이란, 여기

해군사령부에 한사람밖에 더 있소? 아냐, 그사람이 그런 <sup>6</sup>  
양측한 일을 하였던 말이요? 하니 니콜라이는 다시 계속하  
며 말하기를 «이제 내가 말하든 것은 누구에게도 다시 위부지  
라오» 하곤 계속하며 말하기를 «백주에, 이영호 사령관은  
원래 아편쟁이였어서 사령부 군의소에 있는 몰피음악(마취제)  
은 전부다 자기 집에 갖다두고 아편주사를 맞으면서, 일할 시간  
절반이상 잠에 넘어 계시니, 사령부 기관들 사이에 묵은 군사  
규율이 확립된다는 말이요; 하겠더니 이 말을 자기 말대로 꾸  
며서, 내가 사령관의 자리를 빼앗기 위하여 교이적으로 귀의  
뒤를 찔다교 당 지도원에게 밀고하였소, 그러니 나는 잘못된  
것값도» 하면서 «한막에 나를 잡아들여가면 당신은 아들로  
더리고 소련에 돌아가 황부형님을 만나면, 아이들이나 살려달  
라는 나의 부탁이나 전하오 하면서, 스투은 눈물을 흘리었다, 나는  
골리코와 10년을 살아도 그가 눈물을 흘리는것은 처음 보았다. 그후를  
책 교활한 사령부 안기부는 소련에서 온 두삼을 다 검거하고 심문하  
기 시작하였다. 그후 골리코와 가까이 지내던 경치안전부  
기관들이 전하는바에 의하면 골리코 한고함 "친구"는 예심  
과정에서도 한가지 혐부재료를 주었는바, 그것은 - «조선인  
인군은 경주군인데 별밭치산 대원처럼 흥을 거꾸로 12이고 단  
나는 부질서는 용납할수 없다고 하대면서 유서같은 김일성 별  
치산을 공수편하게 전체 기관들 앞에서 비난하였다고» 하였다.  
이렇게 골리코의 한고함 "친구" 골리코에게 이런저런 말들로  
말며 날조 위공하여 씨워놓고 자기는 사상 검후를 아주 솔직  
하게 잘하였다는 표경가로 석방되고 골리코는 애매한  
혐의를 김일성 위당의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곤 말았다.

나는 이렇게 김일성 아들에게 남편을 잃고, 다반 일은 의복 한두벌만 남기고 가정가구 일절을 전부다 몰수당하고 3 아이를 데리고 화물자동차에 싣어서 서평양 보훈감역 반호를 막집 한방에 가게 되었더라 그 밤의 면적은 겨우 7-8 평방 메터나 되었다 나는 이방에서 약 1년동안 소련대사관의 방조를 받으면서 끌려온 행방을 달리고 해군사령부, 최근사령부 중앙당 간부부, 외무성 등에 수차 청원을 올리고 문의하였으나 아무런 회답도 받지 못하면서 소련대사관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외무성에 문의하여도 아무런 소식도 못받았다. 이 당시에 나와 똑같은 형편에 처한 가정은 소련에서 오신 김동철, 김원길 가정들이었더라 이 세 가정은 앞으로 김일성 정세 제도 하에서는 더 살아 갈 수가 없었기때문에 남편들이 물려온 가장금대한 물려받은 알씨도 어린아이들의 목숨이나 살구기 위하여 소련정부가 청원을 물리며 국적 및 입국허가를 받아가지고 피난물로 조국방향을 이별하게 되었다 우리 세 가정은 주인이 없는 가정들이기에 귀국도중에 남취당할수 없음을 예견하고 소련대사에게 청원을 제출하였더니 소련국경도시까지 대사관 직원이 호송하면서 안전하게 보내주었으나 조국의 국경강 범 농강을 건너 물때와 조평양 역전을 건너갈 때에 참 열기도 들었다.»

박 소아 비아블롭나는 1932년에 한성하였다. 1936년에 소련의 정세에 의하여 아버지가 한양당당후 삼촌의 집에 서 자라다가 삼촌 박리오니드가 북한에 파견될시 취미로써 삼촌의 가족을 따라 할러니도 함께 북한에 가서 1948년에 김일성 해군 준관학교 교관에게 출가하였다. 할러니는 1952년에 사망하시고, 삼촌 박리오니드는 1953년 2월에 해군 준관으로서 출장 도중 기동노사에 의하여 전사하였다. 때문에 소련에 친척이라고 하던 고모한분 밖에 없게되었다.

8.  
박 노야는 남편인 꼴라가 말한대로 세 아들<sup>의</sup>을 데리고  
사촌 시형 김창숙 집에 찾아와 그집 사랑방에서 살면서  
아들을 학교에 입학시키고 자기는 직조공장에 취직한다음  
노련군 부부성, 외부성 및 당중앙 외부부에 자서한 편지를  
내며 사학문제, 부양자를 잃은 아이들에 대한 보조금 등을  
요청하는 한편 꼴라에 대한 행적을 알아달라는 요청까지  
지시서히 써 붙티었다. 사학문제와 보조금에 대한 문제는 2개  
달 내로 해결되었으나 꼴라의 행위에 대한 문제는 조선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아무런 회답도 주지 않기로 되어 해결  
할수 없다는 회답만 왔다. 그러나 노야는 이에 만족치 않고  
자기 개체의 행복으로 아이들의 이름으로 자기 아버지를 찾아  
달라는 편지를 여삼 기관들과 북한측에 노련 대사관 북한  
군부성, 외부성, 직접 인민의 아버지로 가칭한 김일성  
에게 부탁 하였으나, 북한측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  
었다.

당시 노련은 자목롭고 살기 좋은 나라로 소문났지만 북한  
가 자아를 천척어 없고, 일천만이 북한에서 굶근 득식으로  
사촌 시형<sup>집에와</sup> 사랑방 살림에서 굶어어를 공부시키거나  
밤잠은 오지않고 울기만 하해서 직장에 나가 좀 돈버  
활 예정으로 기본 기술은 재봉공이면서 직조공으로 근무하다  
보니 오빠같이 넘치않아 질병에 걸리어 엄청난게 되었다.  
병된 침대에 누여 지나간일을 회고하고 앞으로 희망하곤 문일이  
대산갈문어 이모양으로 병원에 있게 되어 너무나 기가 막히  
한숨과 눈물은 질사어가 없었다. 밤이면 잠은 오지않아 이  
쪽 저쪽 모으로 돌으켜 눕다가는 그래도 잠은 오지않아

무차 밖으로 나가곤 하였다. 밖에서 나가면 밝은 하늘에 달도 밝아  
 명랑한데 하늘에는 이내 붉은 초라티 죽었으니 만사시름  
 다 털고 지승에가 평안이 있으리라. 그러나 나를 믿고 사는 세아  
 이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초야는 머리끝까지  
 밝은 하늘에 걸려있는 둥근 달을 쳐다보면서 손들며 말했다  
 - 밝은 달아! 우리 김라에게 그의 가정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  
 소서, 그리고 저 악독한 북한 악당들에게 멸망을 구소서 하면서  
 무차 빌고서 현실에 도루 들어가 높은 가슴의 시원하여 잠을  
 주들수 있었다. 참 밝은 하늘은 우리들에게 축원을 주었다. 이후  
 나는 이어 병원에서 최원하였으니, 소련의 후한 사회체도의 혜택에  
 의하여 수장으로 훌륭한 사색을 분배받고 사후시행 사랑방에서  
 피사하였으니, 아이들은 국가혜택으로 전복다 중학 대학까지  
 나와 현재에 이 남 무렵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 나는 최원후  
 힘겨운 직조공장에서 회직하고 피혁잡화공장에서 자기 기능  
 에 따라 재봉공으로 일하면서 여유시간을 리용하여 열심  
 히 공부하여 벌써 2년후에는 기술공정 검열원으로, 다음  
 1985년도부터는 기술공정 기사로 일하다가 1980년도부터는  
 복직장장, 1985년부터는 직장장으로 일하다가 1988년  
 부터 현재까지 현금생활을 하며 사회사업으로 유가족후원  
 회사업과 구국전선 사업에 참가하고 있다. 북한 노동당 악당원  
 들은 소련에서 온가족들을 전복다 멸망시키려고 "농촌에가서 일만  
 만 고생하면 당은 당신들을 관대히 회복시킬것입니다" 라는 기만  
 으로 많은 농촌에 내려보내었으나 그곳에서 한가족도 도라오지  
 못하고 어어졌으니, 그가족을 찾아보려고 연회같은 사람들로  
 남 최당하여 믿어지고 말했다.

10  
보라, 북한 노동당정체는 그렇게 살기 좋고 자유롭던 인민  
공화국을 무엇으로 변경시켰는가? 인민이 자유롭게 통행  
못하니 이것이 생지옥이 아니고 무엇인가? 왜 북한 사람은  
외국으로 나오지 못하고, 외국에서 간사한들이 아무대로 도와  
다닐수 없는가? 왜 북한 당국은 관광단원들에게 이미  
특별히 준비한 만경대 구역, 조양산구역, 금강산 구역, 백  
두산 구역과 평양의 특별구역들만 보<sup>는가?</sup> 나는 약 5년전에 관광  
단원으로 평양에 갔다. 나의 기본목적은 나포전 끌라에 대  
한 행적을 알아 보려한 것이었다. 나는 평양에 도착한 즉시 나의  
성명을 말하고 책임 항씨원에게 질문하였다. 책임 항씨원은 정  
치 보위부에 보고한다고 하였으나 아무런 회답도 없다가 집  
에 도라올 출발 전날에야 '관하기를 아무것도 안하겠다고  
하였다. 보라 북한은 이렇다. 자기들이 검거한 사람에 대하여  
서도 모른다 하니, 이 나라에서 대간첩 무엇을 믿고 산단 말인가?

« 나의 말이 딱 우한은, 이러한 정체는 하루속히 고쳐되고  
나라의 문을 열어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어 자기라는데  
로 출범케 하라니 수백만 명의 정치범들에 대한 재판을 공개  
하여, 죽었던, 살아있는 간에 알게하여 달라는 것이다. »



해군 소장

조선민주공화국 영웅 김철성씨가 1955년에  
조선 출장시 베네치아에서 해군대학 박물관 감상  
에 자기 감상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



사건은 해군 소장, 공화국영웅  
김철성 씨가 노련 고문들과 같이 찍은

사진 (1955년)



조선 민족공화국 해군 대좌 김철성이  
해군 함교복 작전복장으로 제시시, 1953년  
9월에 조선민족공화국영웅 김극록 대좌와  
같이 찍은사진 (친좌 - 김철성)